



# 서울

## ● 7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4.7% 상승.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

- 전년동월대비 +14.7% = 소매업의 기여도 +1.1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3.5%p  
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  
※관련실경은부록7기여도참조

- 7월 서울 소비경기는 대내외 경기 불안정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며 외부활동이 활성화하고 전년동월 위축 여파로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오름폭은 (전월보다) 증가

## ●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1.6% 증가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45.7% 상승

- 7월 서울의 소매업은 일부 업종이 증가세로 전환되며 증가. 전월 하락했던 의복·섬유·신발(6월 -6.2%⇒7월 12.0%), 종합소매(6월 -1.6%⇒7월 2.0%), 문화·오락·여가(6월 -2.2%⇒7월 0.2%) 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가전제품·정보통신(6월 -15.0%⇒7월 -10.6%), 기타 가정용품(6월 -15.5% ⇒ 7월 -10.0%) 등이 하락폭이 축소되며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증가세 전환

· 7월 서울은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, 종합소매, 문화·오락·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
 · 반면 연료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기타 가정용품,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
- 서울의 숙박·음식점업은 음식점(6월 16.1% ⇒ 7월 40.0%), 숙박(6월 32.4% ⇒ 7월 50.6%), 주점·커피 전문점(6월 51.2% ⇒ 7월 64.9%) 등 세부 업종 모두가 상승폭이 확대되며 오름폭이 (전월보다) 증가. 11개월 연속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 상승세 유지

· 7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
### | 서울 소비경기지수



### |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# |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